

## 사공일 "세계경제 킨들버거 함정 빠졌다"

니어재단, 하반기 경제 세미나

연규욱,김연주 기자    입력 : 2019.09.30 17:59:13    수정 : 2019.09.30 19:54:46

### ◆ 경기불황 대진단 ◆

금융·외환·실물 위기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한국형 복합 불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추락하는 성장과 고용 지표에 수출과 산업 경쟁력마저 휘청이는 '펀더멘탈' 악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장기 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 대책'을 주제로 니어재단이 개최한 '하반기 경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형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리더십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킨들버거 함정'과 유사한 혼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킨들버거 함정은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영국의 뒤를 이어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신흥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공황이 발생한 것을 일컫는다. 지금도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국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G2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혼란이 거듭되면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돌파구가 절실한 한국 경제는 오히려 정책 실패와 실기를 반복하는 경제 리더십의 엇박자로 신음하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역효과가 여러 징후로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흐름에 안 맞는 소득주도성장, 고세율·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공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자칫 설익은 선진국의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와 집권당의 국정과제 1호는 사법 개혁으로 '조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며 우려했다.

[연규욱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